

3

2019

• 통권 427호 •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가정상담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lawhome>



△ 상담소의 2019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7일 열려 2018년도 사업에 대한 감사보고와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 개정 인사규정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30면)



△ 본소의 2019년도 상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월 21일 본소 8층 교육실에서 직원재교육을 겸해 개최되었다. (관련기사 30면)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수선화〉

4. 이 달의 메시지

6. 특집 | 201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통계 ❶

19. 가정폭력상담실

22.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❷

24. 인터넷 상담

25. 좋은 책

이눔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나 봐라

26. 결혼과 인생(193) 만화일기

나는 너의 흠혈귀야~~ 장차현실

27. 임상실습 소감문

30.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33.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36.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이 달의 메시지



상담소의 역사와 함께 해 온 가족법개정운동을 생각하며 -

.....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상담소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가정, 여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 법률구조 사업을 시작하여 63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필연적으로 함께 떠안은 과제가 가족법개정운동과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지금에 이르러서야 일부에서 어떤 이들은 상담소가 너무 많은 일에 욕심을 내는 것 아닌가하는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만 상담소가 올해로 창립 63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해 가족법상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지속적인 개정운동의 대상으로 삼아 동성동본혼인금지 철폐와 호주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이를 주도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담창구를 통해 우리 사회 가정문제의 실상과 변화하는 가정, 가족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보고 읽어냄으로써 현안과 법적인 문제를 직시하여 가정폭력특례법의 제정과 시행, 이혼제도의 개선, 양육비 이행 확보, 성년후견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정과 가족구성원들에 관련된 법안들이 사

회상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법의 제정과 개정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면서 이를 토대로 9월 15일 법전편찬위원회가 구성되어 ‘민법 중 친족상속편’의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앞서 공포된 헌법이 남녀평등에 바탕을 둔 민주주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는데 반해 민법 중 친족상속편은 당대의 관습준중에 치우쳐 부계혈통과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부부·남녀 간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성격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첫 여성변호사였던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은 누구보다 앞서 이에 대해 지적했고 상담소를 통해 법의 개정운동을 본격화하였던 것입니다.

이 결과 우리 가족법은 1958년 제1차 개정을 시작으로 1977년, 1990년, 2002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에 두 차례,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에 걸쳐 모두 14차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동성동본 금혼 폐지와 호주제 폐지 등이 큰 흐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상담소의 가족법개정운동은 상담창구에서 만나게 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하여 상담소의 가족법개정위원회 및 상담위원들의 연구, 토론회와 심포지엄,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법안제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절실한 현실의 기반 위에서 추진력을 얻고 있습니다.

상담소 홈페이지의 가족법 항목에서는 오늘날 상담소가 추진하고자 하는 가족법 개정의 방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혼인 중 재산분할 인정’ ‘비혼모의 부양청구권 인정’ ‘배우자 사망 시 선취분의 인정’ ‘부성주의 원칙 개정’ ‘친생추정조항 개정’ 등이 그것입니다. 사회상의 변화,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가족법도 이러한 변화를 조만간 수용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몇몇의 조항들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이라거나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는가하는 우려와 지적도 있고 그러한 변화가 가능하겠는가하는 회의적인 시선도 있지만 동성동본 금혼과 호주제가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목격해오면서 가족법개정운동의 역사가 가르쳐 준 바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법언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상담소의 역사와 사회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마다 원칙과 근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상담소의 63년 역사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생각하며 도덕적 책무, 혁신과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상담소는 우리 사회 가족 구성원 모두와 함께 노력해 갈 것입니다.

특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8년도 상담 통계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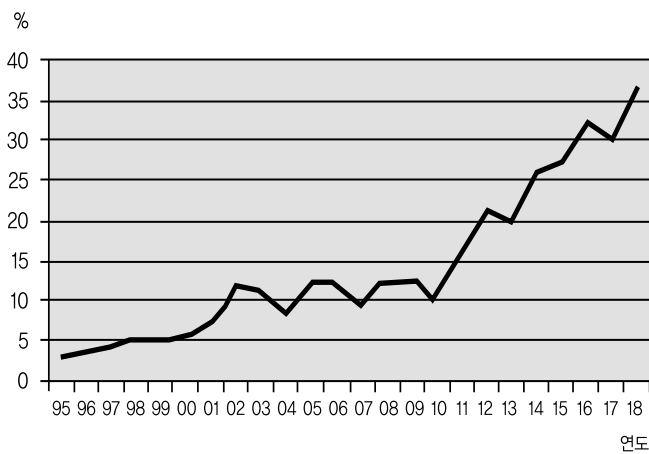
노년 남성,

“평생 뒷바라지했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무시, 죽을 만큼 견디기 힘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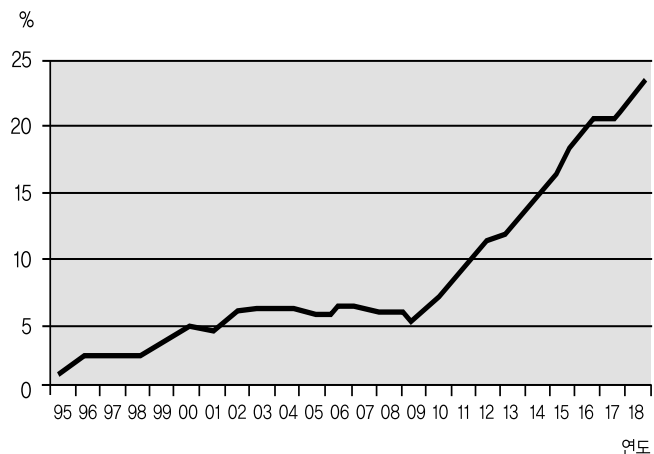
노년 여성,

“맞아도 평생 참고 살아, 하루를 살아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연도별 60대 이상 남성 이혼상담 비율



연도별 60대 이상 여성 이혼상담 비율



60대 이상 남녀 이혼상담 가파르게 증가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1배, 남성은 2.9배 증가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8.7배, 남성은 7.9배 증가)

이혼상담 최고령자 여성 88세, 남성 90세

남성 이혼상담, 60대 이상이 36.3%로 가장 많아

노년 남성,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설 곳 없어
임대주택 받고자 이혼 결심하기도

● 남성 최고령자 부부의 이혼상담 (남성 90세 / 여성 78세)(부부 함께 상담)

(90세 남편 상담 내용)

나는 전처와 사별하였고, 아내는 전남편과 이혼하였다.
18년 전 재혼했는데 처음에는 나이와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이 많았다. 재혼할 당시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
었고, 아내는 어려웠는데 결혼 후 아내는 내게 늘 비지금
이 따로 있다며 의심하고 다투었다. 나를 은행으로 보고
결혼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결국 다투다 서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제라도 아내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
다. 이혼하지 않으면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든다.

● 남성 최고령자 부부의 이혼상담 (남성 90세 / 여성 78세)(부부 함께 상담)

(78세 아내 상담 내용)

남편은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다. 성격도 별나서 자기 원래 가족들과도 교류 없이 지내는 사람이다. 아파서 보일러를 틀면 튼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다. 내 가방을 뒤지고 경제적으로 늘 나를 의심했다. 결혼 후 현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카드를 쓰면 목록을 확인한 후 쓴다고 또 뭐라 했다. 화가 나서 반찬을 안했더니 주먹으로 나를 때렸다. 그래서 나도 같이 때렸다. 하루도 같이 못 살겠어서 나도 이혼 원한다.

● 여성 최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여성 88세 / 상대자 남성 92세)

1953년에 혼인하였다. 남편은 혼인 초부터 외도와 폭행을 일삼았다. 자녀는 모두 5명을 낳았다. 무섭고 괴로웠지만 달리 방도가 없어 맞으면서도 살 수밖에 없었다. 20년 전부터는 별거를 하였다. 어차피 따로 살고 있지만 하루를 살아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이혼 소송을 제기했더니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남편이 전화를 걸어와 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였다.

● 남성 고령자의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남성 86세 / 상대자 여성 84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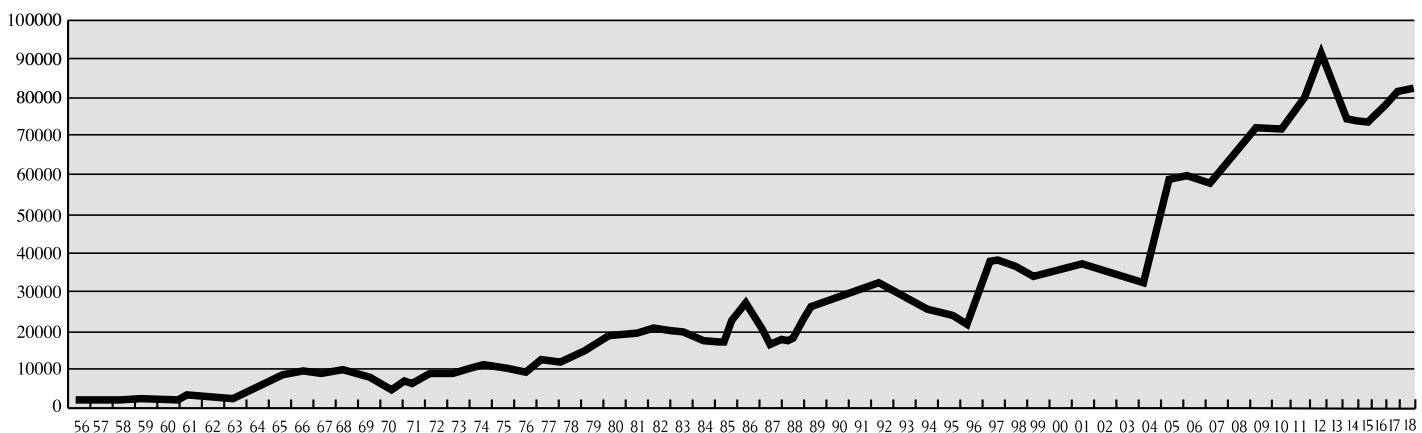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 상대의 요구로 본처와 이혼 후 재혼하였다. 평생 풍족하게 살게 해줬고 15년 전엔 건물을 아내에게 넘겨줬다. 그 때부터 아내와 아들이 나를 무시하였다. 자기들끼리만 한 달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나는 없는 사람 취급했다. 아직 건강한데 돈 한 푼 없이 쫓겨날 상황이다.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이혼하고 내 재산을 다시 찾고 싶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154,429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83,112건, 전국 27개 지부 71,317건).

본부의 2018년도 상담 83,112건(2017년 81,982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75,219건, 화해조정 6,288건, 소장 등 서류작성 1,107건, 소송구조 498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20,775건, 전화상담 59,485건, 인터넷상담 2,685건, 서신상담 5건, 지상상담 7건, 순회상담 155건이었다.

(건수)

연도별 총 상담건수



2018년 본부의 면접상담은 총 20,775건이었다. 사건내용은 크게 가사·민사·형사로 분류하는데, 가사사건이 19,384건으로 면접상담의 93.3%를 차지하였으며, 민사사건이 1,272건(6.1%), 형사사건이 119건(0.6%)이었다.

유언 상속 상담 비율, 10년 전에 비해 5.2배 증가

부모 사망하기도 전,

자신이 상속받게 될 지분에 대한 문의 많아

아들에게 이미 증여된 재산,

유류분 찾고자 하는 딸들 많아

경기 악화로 한정승인, 상속포기 문의도 많아

면접상담 중 유언·상속에 대한 상담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전체 면접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8%(958건)였으나, 2014년에는 6.3%(1,010건), 2015년에는 8.1%(1,811건), 2016년에는 10.1%(2,239건), 2017년에는 10.1%(2,007건), 2018년에는 10.9%(2,258건)로 나타나 2018년에는 5년 전인 2013년보다 1.9배, 10년 전인 2008년보다는 5.2배 증가하였다.(2008년 유언·상속 2.1%, 184건).

유언은 본인 사후에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 이에 관한 상담은 자신의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할

지 재산에 대한 지분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상속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망자의 재산권 등을 포함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이는 다시 상속인이 망자가 남긴 재산을 적극적으로 더 받고자 하는 경우와 빚을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로 나뉜다.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일부 내담자는 부모가 사망하기도 전에 나중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분에 대해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재산이 있는 부모가 고령으로 치매나 심각한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형제들끼리 부모 재산을 두고 갈등이 많았고, 이는 부모 사망 후 고스란히 상속 문제로 이어져 갈등의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딸들의 발언권이 강해지면서 오래 전 아들 특히 장남에게 이미 증여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찾고자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부모의 이혼 등 다양한 사유로 연락이 두절되었던 부, 모, 형제 사망 후 망자의 빚 문제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문의해 오는 경우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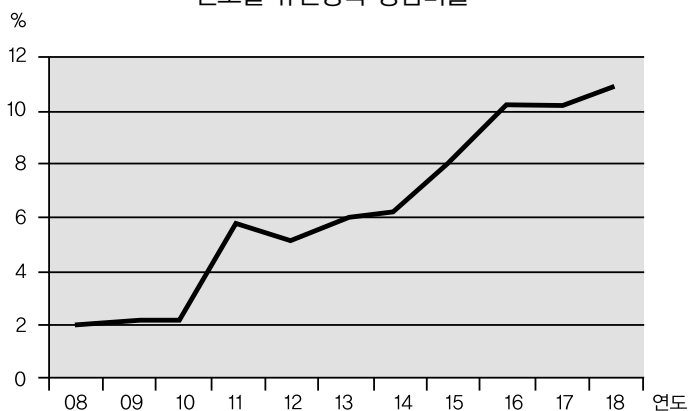
● 유언·상속 상담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7년 전 아버지가 어머니, 장남, 나에게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나머지 두 아들은 아버지 계실 때 연을 끊고 지냈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 어머니가 거주 중인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대로 등기하였다. 장남은 어머니에게 어머니 지분을 모두 자신에게 증여하라고 강요하고 나머지 두 아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매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현재 어머니가 초기 치매 등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는데 지속적인 형제들의 다툼과 강요로 얼마 전 어머니가 쓰러졌다. 막내인 나만 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다.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다.

연도별 유언상속 상담비율



● 유언·상속 상담사례 2

(내담자 60대 여성)

친정 어머니가 현재 87세이다. 나는 2남 5녀 중 장녀이다. 장남과 막내 아들에게는 그동안 땅과 아파트 등 많은 재산을 주었지만 딸들에게는 한 톨도 주지 않았다. 아들들은 어머니를 잘 돌보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얼마 전 어머니가 또 남은 전 재산을 장남에게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딸들은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데 후에 내가 받을 몫이 있는가? 과거에 이미 아들들에게 준 재산들에 대해서도 내 몫을 청구할 수 있는가?

● 유언·상속 상담사례 3

(내담자 60대 남성)

여동생이 2달 전 사망하였다. 이복 동생이었고 연락도 없이 지내왔다. 여동생은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하였고, 아버지와 여동생의 어머니도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나와 나머지 형제들 5명이 상속인이 되었다. 그 중 막내는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고, 한 명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연락 없이 지내왔기에 정확한 재산 내역은 알지 못하나 가게를 하다 어려워져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가 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순위로 넘어간다는데 범위가 커져 걱정이고, 또 연락 안 되는 형제가 있어 그것도 문제이다.

성년후견 상담 비율,

시행 첫해인 2013년에 비해 5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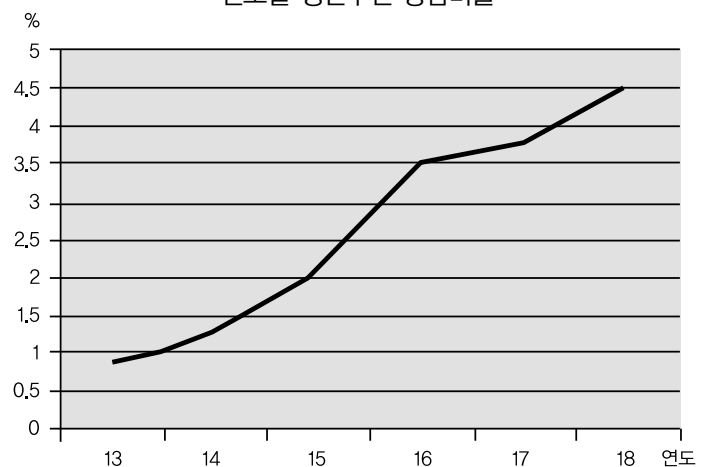
질병 앓는 고령 부모, 부모는 자녀 못 믿고,
자녀는 부모 못 믿어

부모 재산 관리, 서로 후견인 되겠다며 자녀들끼리 다툼

2013년 첫 시행 후 5년이 지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상담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전체 면접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143건)였으나, 2014년에는 1.3%(211건), 2015년에는 2.1%(469건), 2016년에는 3.5%(763건), 2017년에는 3.8%(761건), 2018년에는 4.5%(935건)로 나타나 2018년에는 시행 첫 해인 2013년에 비해 5배나 비율이 증가하였다.

성년후견이 개시될 경우 후견인에게는 피후견인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 관련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이 부여되는데 피후견인에게 관리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에 대한 문의가 현저하게 적었다. 반면, 피성년후견인에게 관리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 문제가 발생하고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이가 피후견인의 부모나 배우자일 때에는 가족 간에 큰 갈등이 없었으나 형제나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형제 및 자녀들과 갈등이 심각한 경우가 많았다.

연도별 성년후견 상담비율



● 성년후견 상담사례 1

(내담자 40대 여성)

어머니가 1년 전 치매판정을 받았다. 나는 딸 셋 중 막내딸이고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내가 가까이에서 계속 어머니를 돌봐왔다. 어머니가 치매판정을 받은

후 어머니 병간호 관련해서 작은 언니와 갈등이 생겼다. 이제껏 일 년에 한 번도 제대로 오지 않았던 작은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시라고 주장하며 치료 방법 등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다. 또한, 어머니에게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세입자 재계약 시점이 되자 이번에는 지방에 사는 큰언니가 올라와 부동산 업자를 만나 집 시세를 알아보고 다니는 등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어머니는 보지도 않고 내려갔다. 어머니 계시는 동안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 성년후견 상담사례 2

(내담자 50대 남성)

여동생이 5년 전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발병 전에 혼인하여 3년 간 살다가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에도 그 사람과 같이 동거하고 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아 1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5억원 가량의 예금이 있다. 그런데 동생의 전배우자가 그 돈을 계속 횡청망청 쓰고 있다. 동생이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동생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내 위로 형이 있는데 동생이 어떻게 사는지에는 관심이 없지만 막상 내가 후견인이 된다고 하면 돈 문제가 걸려 있어 본인도 나설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가?

이혼상담

총 4,653건,
여성내담자 3,288명(70.7%),
남성내담자 1,365명(29.3%)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4,653건의 이혼상담을 진행하였다. 이중 여성 내담자는 3,288명이었

고, 남성내담자는 1,365명이었다.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3~4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무직,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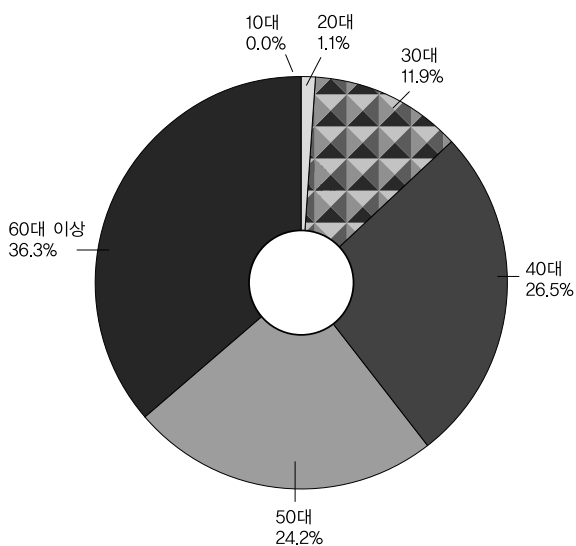
여성은 40대(964명, 29.3%), 50대(834명, 25.4%), 60대 이상(774명, 23.5%), 30대(612명, 18.6%), 20대(104명, 3.2%) 순으로, 남성은 60대 이상(495명, 36.3%), 40대(362명, 26.5%), 50대(362명, 26.5%), 30대(163명, 11.9%), 20대(15명, 1.1%) 순으로 나타나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녀 모두 과거에는 30와 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10년 전인 2008년 이후부터는 50대가 점차 증가해 2013년에는 40대,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남성은 2014년과 2015년에 1순위인 40대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순위를 차지하였고, 2016년부터는 60대 이상이 모든 연령대를 제치고 1순위로 올라섰고, 2018년에는 60대 이상이 36.3%를 기록하였다. 여성은 2017년에 50대가 1순위로 올라섰다가 2018년에는 다시 40대(29.3%)가 1순위를 차지하였으나 50대(25.4%)와 60대 이상(23.5%)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2009년 이후부터는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2009년 5.5%, 2010년 7.0%, 2011년 9.2%, 2012년 11.4%, 2013년 12.4%, 2014년 14.8%, 2015년 18.1%, 2016년 20.7%, 2017년 21.1%, 2018년 2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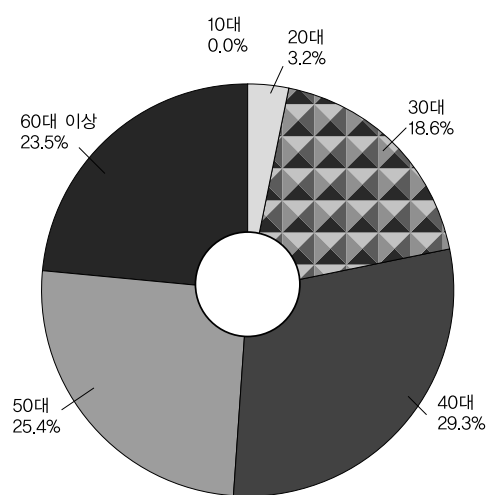
60대 이상 남녀의 경우, 상담을 통해 보면 혼인 초부터 대부분 갈등이 있었다. 특히 여성 내담자는 30~40년 전에도 본 상담소를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수십 년 전 남편의 외도와 폭력, 시부모로부터의 부당대우 등을 견디기 힘들어 상담소를 방문했으나 자녀가 어리고 경제적 능

력이 없어 다시 돌아가 폭력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하고 재산분할, 연금분할이 가능해지는 등 독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면서 남은 인생은 하루를 살더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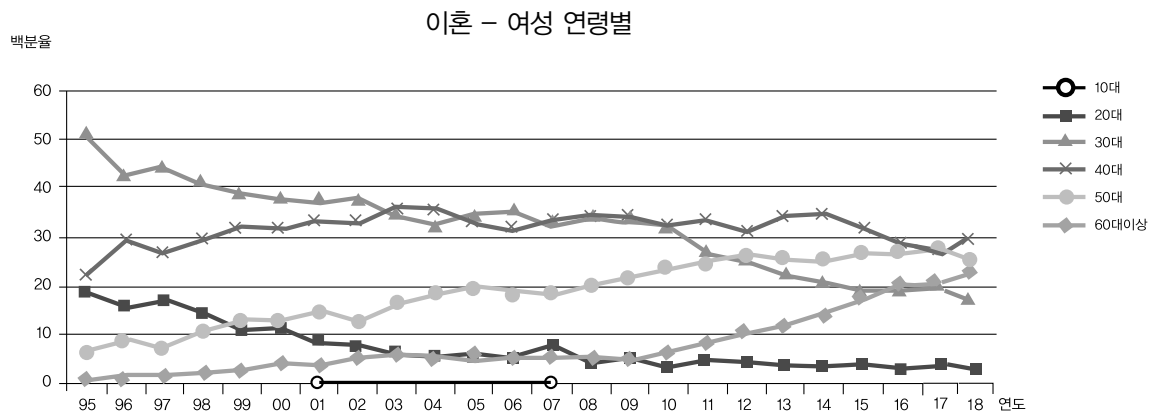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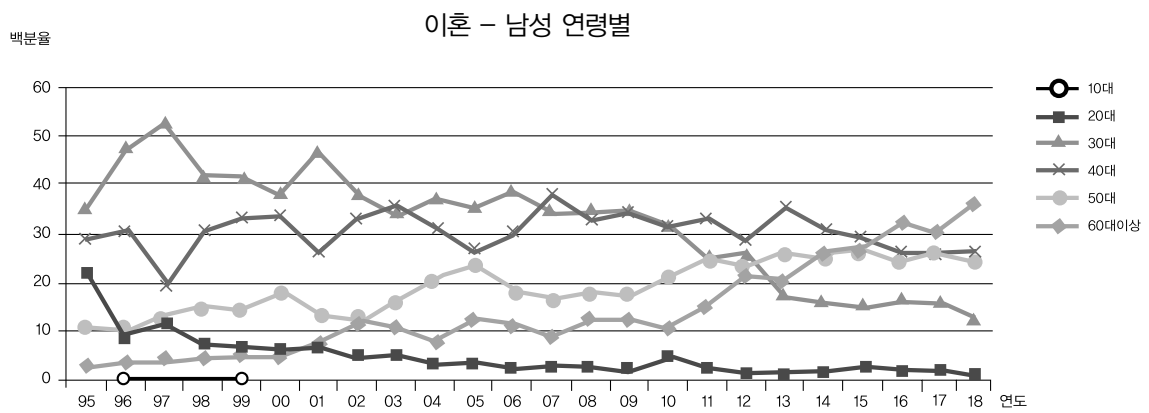
남편의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다시 이혼상담을 해왔다. 또한 노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성장한 자녀들이 엄마의 삶을 이해하고 이혼을 돕기 위해 같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성의 연령별 이혼상담 비율



여성의 연령별 이혼상담 비율



반면, 60대 이상 남성들은 젊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나 나이 들어 퇴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력이 감소하자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한다는 호소를 많이 해왔다. 이들은 젊어서부터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나 퇴직해 집에 있게 되자 아내가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였고, 특히 자녀들도 엄마인 아내 편에 서서 함께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하는 등 몰아세워 자신들이 가정 내에서 설 자리가 없으며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들은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느낀 배신감, 억울함, 부담감에서 벗어나 이제라도 홀가분하게 자신만의 삶을 살고 싶다며 이혼상담을 해왔다. 더불어 성장한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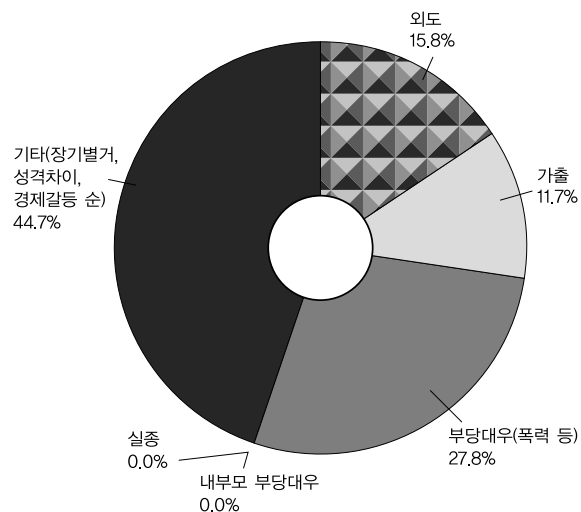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3,288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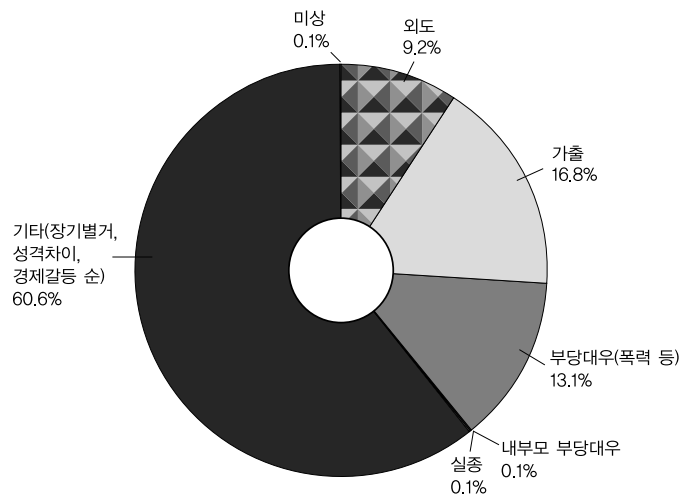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생활무능력·빚, 알콜중독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44.7%, 1,470건)
- 2위 '남편의 부당대우(폭력)' (3호)(27.8%, 912건)
- 3위 '남편의 외도' (1호)(15.8%, 519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365건)

-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생활양식 및 가치관 차이, 폭언, 정신병 등이 우선 순위임)' (6호)(60.6%, 827건)
- 2위 '아내의 가출' (2호)(16.8%, 230건)
- 3위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1호)(13.1%, 179건)



여성의 이혼사유



남성의 이혼사유

단일 사유로는 여전히 폭력, 외도, 가출 등 뚜렷한 사유가 많아

기타사유 항목을 묶지 않고 단일 사유만 고려하면 여성은 '남편의 부당대우(폭력)'가 91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남편의 외도' 519건, '남편의 가출' 385건 순이었다.

여성의 전체 이혼상담 중 27.8%(912건)가 남편의 폭력을 호소해 여전히 가정폭력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98년 가정폭력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공권력이 개입하여 가정폭력을

범죄로 처벌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정 내에 남편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그로 인해 여성과 자녀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장기별거’가 2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아내의 가출’ 230건, ‘아내의 부당대우(폭력)’ 179건 순이었다. 아내의 가출을 이혼사유로 제시한 경우가 전체의 16.8%에 달했는데 아내가 외도나 빚 등을 이유로 집을 나가 잠적한 경우도 있었지만, 상담을 통해 보면, 부부싸움 중 남편의 폭력이 먼저 있고, 아내가 폭력을 피해 집을 나간 경우도 있었다.

한편, 아내의 부당대우를 호소한 남성도 전체의 13.1%(179건)에 달하였다. 상담을 통해 보면, 과거에는 아내로부터의 부당대우가 주로 남편에 대한 홀대, 무시 정도였으나 근래에는 기물파손을 넘어서 폭언, 직접적인 폭행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는 아내의 폭력이 남편의 폭력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근래에는 여성이 분노를 참지 못해 어린 자녀나 남편에게 먼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60대 여성)

남편이 욕을 잘하고 폭행을 자주했다. 2년 전에도 남편이 나를 폭행했는데 남편이 폭행을 말리던 딸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 과정에서 딸의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 심지어 내가 손자를 안고 있는데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기도 하였다. 지난 11월에도 폭행을 하고 이번 1월에도 폭행을 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번 폭행 때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집을 나와 현재 쉼터에 있다. 그러자 남편은 자신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겠다고면서 문자를 보내오는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 이제는 지쳐 이혼하고 싶다.

● 아내의 폭행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내담자 30대 남성)

아내는 지방 본사에서 근무 중인데 나보다 연봉이 2배 많다. 3년 간 주말부부로 지냈는데 얼마 전 갑자기 내게 이혼 요구해왔다. 살고 있는 집도 친정에서 마련해 준 것이니 모두 내놓고 몸만 나가라고 했다. 나는 아이도 이제 겨우 초등학교생이니 이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새벽에 찾아와 나를 4시간 동안 폭행하였다. 아내의 폭행은 결혼 초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내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해 오하려 내가 가해자로 몰린 적도 있었다. 이것을 빌미로 아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는 어린 아이에게도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는 등 매우 난폭한 사람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자 나도 더 이상 살 마음이 없다. 내가 아이를 맡고 이혼하고 싶다.

남녀 모두 1순위를 차지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으로 상담 많아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남녀 모두 1순위로 나타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470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20.5%(30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6.9%(248건), ‘경제갈등’ 11.4%(167건), ‘폭언’ 7.1%(105건), ‘생활무능력·빚’ 3.8%(56건), ‘알콜중독’ 3.7%(55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827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4.8%(28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9.8%(164건), ‘경제갈등’ 7.1%(59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5.5%(45건),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2.7%(22건), '폭언' 1.8%(15건), '정신병' 1.7%(14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여성 20.5%, 남성 34.8%), '성격차이' (여성 16.9%, 19.8%), '경제갈등' (여성 11.4%, 남성 7.1%) 순으로 상담이 많았다.

장기별거 비율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8배, 남성은 4.4배 증가

기타사유인 6호사유 중 '장기별거'의 비율은 10년 전인 2008년에 비해 여성은 4.8배, 남성은 4.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08년 여성 4.3%, 남성 8.0%). 6호사유 중 '장기별거'는 2호사유인 '악의의 유기'와는 차이가 있다. 2호사유인 '악의의 유기'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가출로 다른 일방을 버린 상황을 의미하는 반면, 6호사유 중 하나인 '장기별거'는 부부 간 갈등을 진정시키거나 회피하는 수단으로 합의 하에 또는 일방의 통보로 별거가 시작되었으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기간이 장기화되어 결국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다양한 갈등 사유를 원인으로 별거가 시작되고 초기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 관련 문제나 생활비 지급 등을 이유로 비교적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별거 자체가 하나의 이혼사유가 되고 연락마저 끊기게 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60대 남성)

아내는 혼인 초부터 사소한 일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출을 반복하였다. 내가 지방까지 가서 아내를 찾아온 적도 여러 번 있었다. 20년 전 가출한 후로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LH 임대주택을 재계약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있어 거절당하였다. 현재 나

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임대주택 재계약이 안 되면 오갈 데도 없다. 서류뿐인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계속 혜택을 받고 싶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과 별거한 지 15년이 되었다. 딸이 결혼하겠다고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대하였다. 후에 손·자녀도 안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딸이 간곡히 원해 결국 결혼을 시키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남편이 같이 살지 못하겠다고며 통보한 후 집을 나갔다. 조금 지나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그렇게 별거를 시작하여 15년이 지났다. 실제로 남편은 딸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고, 이후 손자도 보지 않았다. 5년 전에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하여 같이 법원에 갔지만, 확인 받는 날 남편이 나오지 않았다. 남편은 혼자서도 이혼이 되니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만 한다. 살면서도 남편은 뭐든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수시로 집을 나갔었다. 더 이상은 부부로 남고 싶지 않아 재판을 통해서라도 이혼하고 싶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 주장하는 이들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 상담을 한 경우가 많았다(여성 16.9%, 남성 19.8%). 과거에는 외도나 폭행, 가출과 같이 뚜렷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이혼을 망설이는 경향이 강했으나 사회 변화로 이혼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다소 완화되고 여성의 경제력이 커짐에 따라 성격차이에 따른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의 수가 줄어 양육에 부담을 갖는 기간은 단축된 반면 기대 수명은 늘어난 점도 과거에 비해 좀더 수월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남성)

혼인한 지 1년 반 지났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할 수 없이 상대와 혼인신고하였다.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혼인신고를 했고, 이왕 혼인했으니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해 보았다. 그러나 사 사건건 다툼이 많았고 앞으로 살아도 결코 행복할 것 같지 않다. 아이가 어리지만 불행할 것을 알면서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현재 나는 혼인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상대방에게 유책사유는 특별히 없지만 이혼할 수 있는가?

● 성격차이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은 수입도 많고 상가와 땅도 많다. 먹고 살 만한데도 밥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그래서 늘 내가 진수성찬처럼 극진히 차려주기를 원한다. 한번은 어디 다녀오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 푸드코트에 가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자고 했다고 내게 폭언을 해대기도 했다. 늘 밥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나도 대단히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항상 맞출 수만은 없다. 그 외에도 남편은 뭐든 자신의 맘에 맞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낸다. 타협이 없는 사람이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아빠 때문에 너무 숨막혀 죽고싶다는 말을 했다.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남편과 헤어지고 싶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 주장하는 이들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을 문제 삼아 이혼 상담을 한 경우가 많았다(여성 11.4%, 남성 7.1%). 경제갈등은 IMF 이후 경제사정이 악화되면서 꾸준히 등장하는 이혼

사유로 여성의 경우 1998년, 2008년, 2018년 모두 6호사유 중 동일하게 11.4%를 차지하였고, 남성의 경우에도 1998년 10.5%, 2008년 7.6%, 2018년 7.1%로 6호사유 중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계속되는 불경기, 사업실패, 실직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위기 지수는 높아지는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생활비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 양가 노부모 부양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가정 내 경제갈등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남편의 외벌이 수입에 의존해 그 범위 안에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가정 내 모든 주도권도 남성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가정경제에서 여성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고, 올라가는 수입만큼 여성들의 가정 내 힘도 커져 서로 의견이 맞지 않거나 남편의 수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제갈등이 더 심각하게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생활무능력을 내세운 여성들의 비율이 6호사유 중 3.8%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이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60대 남성)

나는 중장비 일을 하는데 아내를 전적으로 믿었기에 돈을 버는 대로 모두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다. 남들 퇴직하는 나이에도 열심히 일해서 일년에도 수시로 3,000~4,000만원씩 목돈으로 주었다. 상대는 그 돈으로 돈놀이도 하며 풍족하게 살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경기가 안 좋아 일도 줄고 몸도 힘들어 돈을 제대로 못 벌었고, 아내에게 쓸 돈을 좀 달라했더니 되려 내게 이혼을 요구해왔다. 나도 그런 사람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재산 나누고 이혼하자 했더니 가진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동안 내 돈을 친정 동생들 뒷바라지하는데 많이 썼고 상당부분 동생들 명의로 재산을 해 놓은 것을 내가 안다. 내 몫을 어떻게 찾아와야 하는가?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여성)

남편은 내가 돈 관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혼하자는 말을 자주 해왔다. 오늘도 서류를 가져오라며 내게 폭언을 해댔다. 남편은 통장 내역을 일일이 살펴 5만원은 어디 썼는지, 10만원은 왜 썼는지 따진다. 시장 가서 장 봐왔다고 하면 그 반찬이 없었다며 추궁을 한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텐데 생각하면 숨이 막혀온다. 나와 같이 벌여 상가를 샀는데 마치 혼자 번 양 나를 짓누른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까지 이렇게 일일이 감시와 지적을 당해야 하나 싶어 회한이 된다. 이혼하고 싶다.

60대 이상 이혼상담 분석

이혼상담에서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연령별 분석 첫 해인 1995년에는 60대 이상이 여성 1.2%, 남성 2.8%로 매우 적었으나 이후 조금씩 상승해 20년 전인 1998년에는 여성 2.7%, 남성 4.6%, 10년 전인 2008년에는 여성 5.8%, 남성 12.4%로 나타났고, 2018년에는 더욱 증가해 여성 23.5%, 남성 36.3%를 기록하였다.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여성은 4.1배, 남성은 2.9배, 20년 전에 비해 여성은 8.7배, 남성은 7.9배 증가하였다.

2018년도에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774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560명, 70대는 188명, 80대 이상은 26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495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313명, 70대는

6호사유 중 비율 증가 항목(2017년 → 2018년)

여성			남성		
사유	2017년(%)	2018년(%)	사유	2017년(%)	2018년(%)
불신	1.2	1.6	경제갈등	6.7	7.1
거짓말	0.8	1.2	생활무능력	0.3	0.5
결혼조건속임	0.3	0.9	빚	1.0	1.5
경제갈등	11.2	11.4	도박	0.4	0.6
불성실한 생활	0.9	1.3	전과/복역	0.4	1.1
빚	3.7	3.8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2.1	2.7
성격차이	12.4	16.9	종교갈등	0.1	0.7
신체적 질병	0.2	0.3	성격차이	16.3	19.8
정신병	0.9	1.1	혼전성관계	0.0	0.1
의처증	1.7	2.1	신체적 질병	0.1	0.4
주벽	1.3	1.4	주벽	0.0	0.1
알콜중독	3.0	3.7	알콜중독	0.6	1.2
폭언	5.4	7.1	폭언	1.4	1.8
자녀학대	0.2	0.5	자녀학대	0.0	0.2
장기별거	19.0	20.5	잡은 가출	0.5	1.1
시가와의 갈등	0.7	1.7	장기별거	29.2	34.8
성격파탄	0.0	0.2	처가와의 갈등	0.5	1.5
쇼핑중독	0.0	0.1	고부갈등	0.1	0.2
자녀양육갈등	0.1	0.3	자녀양육갈등	0.1	0.2
동성애	0.0	0.1	가사분담갈등	0.0	0.1

* 진한 글씨는 남녀 모두 증가한 항목임

142명, 80대 이상은 40명이었다. 한편, 이혼상담을 받은 내담자 중 최고령자는 남성 90세, 여성 88세였다.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남편의 가출) 순, 70대는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1호(남편의 외도) 순, 80대는 1호(남편의 외도),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순), 3호(남편의 폭력)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는 60대, 70대, 80대 이상이 모두 6호(기타사유),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연령대에서 1순위를 차지한 기타 6호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60대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70대는 장기별거,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순, 80대 이상은 장기별거, 성격차이, 빚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60대, 70대, 남성 60대, 70대, 80대 이상에서 모두 1순위로 6호사유를 제시하였고,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 성격차이가 많았다. 다음 순위로 여성 60대는 남편의 폭력, 남편의 가출, 70대는 남편의 폭력, 남편의 외도를 꼽았다. 다음 순위로 남성은 60대, 70대, 80대 이상 모두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를 꼽았다. 한편, 80대 이상 여성은 남편의 외도, 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순), 남편의 폭력 순으로 이혼사유를 제시하였다.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여 성	남 성
1995년	41명(1.2%)	15명(2.8%)
1996년	91명(2.4%)	22명(3.6%)
1997년	96명(2.5%)	25명(4.0%)
1998년	123명(2.7%)	35명(4.6%)
1999년	156명(3.5%)	36명(4.8%)
2000년	237명(4.9%)	41명(5.2%)
2001년	203명(4.5%)	48명(7.7%)
2002년	223명(5.8%)	73명(11.6%)
2003년	212명(6.2%)	60명(10.7%)
2004년	205명(6.2%)	45명(8.4%)
2005년	179명(5.8%)	53명(12.5%)
2006년	211명(6.1%)	60명(11.4%)
2007년	216명(6.0%)	68명(9.0%)
2008년	209명(5.8%)	70명(12.4%)
2009년	213명(5.5%)	79명(12.5%)
2010년	254명(7.0%)	57명(10.5%)
2011년	402명(9.2%)	122명(15.0%)
2012년	521명(11.4%)	175명(21.0%)
2013년	689명(12.4%)	272명(20.1%)
2014년	752명(14.8%)	373명(26.1%)
2015년	996명(18.1%)	524명(27.2%)
2016년	1,038명(20.7%)	626명(31.9%)
2017년	818명(21.1%)	409명(30.4%)
2018년	774명(23.5%)	495명(36.3%)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아내의 가출)
	2호(남편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70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1호(아내의 외도)
80대 이상	1호(남편의 외도)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빚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남편의 폭력)	1호(아내의 외도)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60대 남성)

아내가 자녀들 결혼 시킨 후 나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손자를 봐준다면 주중에는 딸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오더니 아예 주말에도 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2년 전부터는 외국에 있는 아들집에 가서 아들의 손자를 봐주며 오지 않고 있다. 아내의 출국을 반대했지만 아내는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녀들까지 아내편만 들며 나를 몰아세웠다.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내게 생활비를 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차라리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살고 싶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여성)

혼인 초부터 내가 미용일을 하며 생활을 해왔다. 남편은 돈도 제대로 벌지 않으면서 내 수입을 모두 관리하였다.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폭행을 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였다. 남편은 자신은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반면 내 친정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며 늘 나와 친정을 무시하였다. 엇그제도 다투다가 남편에게 맞았다. 아이들도 지긋지긋한지 나더러 제발 이혼하라고 한다. 그동안 돈은 내가 다 벌었고, 살림도 내가 다 해왔다. 집이 한 채 있는데 이혼할 경우 남편에게 재산을 나눠 주어야 하는가?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은 젊어서부터 내게 생활비를 잘 안 줬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사사건건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동냥하듯 준 것이다. 결혼한 지 50년 되었고 내 나이도 72세인데 얼마 전까지도 나는 어린이집에서 취사일을 해 생활을 해왔다. 남편은 자기가 쓰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쓰고 몇십만원씩 술도 자주 산다.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폭언을 해대고 아들과도 수시로 싸운다. 더 이상은 남편과 살고 싶지 않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70대 남성)

혼인해서 딸 하나 낳고 그런 대로 잘 살았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아내와 갈등이 많아졌다. 한번은 퇴근해서 돌아오니 아내가 지방에 있는 동생 집으로 가겠다고 통보를 했고, 다음날 출근해서 돌아오니 진짜로 짐을 싸서 가버렸다. 3달 만에 돌아왔으나 이후에도 수시로 집을 나갔다. 그러다가 20년 전에는 아예 나가 들어오지를 않았다. 딸과는 가끔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전혀 소식을 모른다. 이혼을 하나 안하나 별 차이가 없어 그냥 살았다. 내가 영구임대주택아파트를 신청하였고, 선정되어 다음달 입주하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재산이 있어 선정이 취소되었다. 이혼하는 방법은?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80대 여성)

남편이 50년 전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나 혼자 4남매를 키워왔다. 남편은 그동안 개발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재산을 많이 일켰다. 나는 사는 게 어려워 이 나이에 공공근로라도 나가려 했으나 남편 재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었다. 나는 그동안 남편에게 부양료 한 푼 받아 본 적이 없다. 이제라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하고 이혼할 수 있는가?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80대 남성)

중심에 살다가 변두리로 이사를 왔다. 아내는 새로 이사와도 여기저기 다니며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노인정에 있는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는데 상대도 한두 명이 아니었다. 현재 아내는 큰딸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외도하는 상대방이 그 집에도 드나드는 것으로 안다. 그런 아내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혼 원한다.

김진영 상담위원



사안에 맞춰 다양한 상담 제공하고,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문제 해결에도 힘써

사건번호 2017버1*** 상해,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남편) 개별상담 4회, 전화상담 4회,
교육강좌 1회, 집단상담 4회,
피해자 (아내) 개별상담 2회,
부부상담 1회 등 총 16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0. 12. ~ 2018. 4. 23.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는 2015년부터 사실혼으로 살고 있으며, 부부 사이에 1남(3세)이 있다.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20대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결혼하고 부모가 되었다. 행위자는 2017. 2. 사건 당일, 피해자가 월급을 받은 지 2주 만에 다 사용하고 통장 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여 6개월간 보호관찰 및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았다.

초상담 시 피해자는 행위자가 있을 때는 자신의 의사를 전혀 말하지 못한다고 하며, 본 사건 이후로도 폭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행위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일을 하였지만 여름이 지나자 일을 하지 않아 100만원도 안 되

는 긴급지원자금으로 살고 있다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결혼을 반대한 친정과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행위자가 변화하지 않으면 집을 나와 보호시설에 입소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행위자는 어릴 때 몸에 문신을 한 것이 장애요인이 되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좌절감으로 가사나 자녀 양육에 동참할 의욕이 없고 나태한 일상생활을 하며 피해자에게 욕을 많이 하였고 이것이 부부갈등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 행위자가 부부갈등 원인 및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언어폭력 등 가정폭력에 대해 인식을 개선할 시간을 갖고, 구직활동과 가사 및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주문하며 상담계획을 수립하였다.

행위자는 상담에 임하는 동안 폭력을 하지 않았고, 가사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려고 노력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거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될 때 부정적인 마음이 쌓인다고 하여 피해자에게도 행위자의 need를 전하고 노력을 당부하였다. 행위자는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신이 아이와 노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였다. 자신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노력할 과제를 수용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그 감정을 그대로 수용하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함께 갖도록 격려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행위자는 상담중기에 접어들면서 다시 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일을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피해자가 행위자의 가사 및 육아 동참 등 변화를 인정하면서 부부관계도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7버1*폭행 서울가정법원****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6회, 전화상담 1회,
음주문제상담 2회, 교육강좌 3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0. 27 ~ 2018. 4. 26.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2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2남(19세, 16세)이 있다. 행위자는 2016년부터 피해자의 태도에 의심을 가졌는데 2017년 7월 어느 날 피해자의 다 이어리와 휴대폰에서 중학교 동창과의 외도를 의심케 하는 메로를 발견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며칠 후인 사건당일,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시비 중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초상담에서 행위자는 피해자의 외도, 가사와 자녀 방임, 수입을 생활비로 전혀 보태지 않는 경제문제 등을 갈등원인으로 꼽았지만 자녀들의 이혼 만류 등을 이유로 이혼할 의사는 없었다.

피해자도 적극적인 이혼의사는 없었는데 공동명의로 소유한 집을 팔게 되면 이혼하겠다고 하였고,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고 늦게 귀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피해자는 부부갈등원인을 행위자의 오해 때문이라고 하였고, 행위자가 본 처분과 관련하여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자신을 원망하는 기색을 보였으며, 처분 기간 중 신체폭력은 없었지만 언어폭력은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이혼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행위자의 태도를 조금 더 지켜볼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행위자의 상담목표를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피해자와의 갈등 해결방법에 대한 숙고로 정하고, 피해자 관점에서의 태도 변화를 주문하였다.

행위자는 직장 근무를 이유로 상담시간에 맞추기 어렵다

고 하였지만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먼저 음주문제상담을 통하여 음주습관을 점검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고,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9시 30분에 진행하는 집단상담에도 참여하였다. 집단상담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구나' '사람 사는 길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를 마음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과거사를 거론하지 않는 태도 변화를 보인 것이 부부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되었다.

상담 종결 시, 부부간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해자도 퇴근 후 1주일에 2회 헬스장에 다니는 외에는 일찍 귀가하고 행위자와 함께 가사에 참여하는 변화가 있었다.

사건번호 2017버1* 특수폭행 / 2017버1*** 존속폭행
서울가정법원****상담진행**

행위자 겸 피해자(아버지) 개별상담 3회, 전화상담 1회,
교육강좌 1회, 부모집단상담 7회, 집단상담 3회
행위자 겸 피해자(아들)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4회,
집단상담 3회,
등 총 27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0. 26. ~ 2018. 4. 27

상담경과

아버지는 오랜 기간 배우자와 불화하였고 10년 전부터는 부부관계가 거의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었는데 2017년 7월 사건당일, 배우자가 늦게 귀가한 것을 이유로 시비하다가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였다. 이를 본 아들이 아버지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내리치는 폭행을 하자 힘으로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와 아들을 향해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상호 폭력을 행사하여 쌍방이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 이후 아버지는 협의이혼을 하고 혼자 살고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이혼 시 합의한 재산분할금을 미지급하여 전배우자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아버지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 감정이 가득하였기에 아들과의 문제를 숙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부모집단상담에 참여하게 하였다. 부모집단상담에서 아버지는 아들과의 갈등이야기를 풀어놓으며 “겁을 준 것은 아들인데 왜 내가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과 서러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는데, 부모집단상담을 마친 후에는 “아들에게 특별히 마음에 맺힌 응어리는 없다, 다만, 그동안 아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고 당분간 만날 계획도 없으며 관계 정리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상담을 통해 깨우친 바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심적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것과 폭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아들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폭언, 폭행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은 대학을 자퇴하고 취업준비 중이었는데 상담 진행 중 취직을 하게 되어 개별상담과 야간의 집단상담에 격주로 참석하도록 하였다. 아들 역시 아버지와 접촉할 의사는 없다고 하였고,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지금이 마음 편하다고 하면서 향후 폭력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1*** 협박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남편) 개별상담 9회, 전화상담 2회,
교육강좌 6회, 집단상담 8회,
피해자 (아내) 전화상담 1회,
등 총 26회 실시

상담기간

2017. 11. 8. ~ 2018. 5. 3.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11년 되었으며, 부부사이에 3녀(12세, 9세, 6세)가 있다. 행위자는 회사에 다니다가 7년 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와서 퇴직하였다. 마침 피해자가 셋째를 출산하고 복직하여야 하는 시기여서 행위자가 그 때부터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아왔다.

피해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늘 여유가 없었다고 하였고, 경제문제와 자녀 양육방식 문제로 부부갈등이 있었다고 하였다. 2017년 8월 사건당일, 집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부부는 경제적 문제로 언성을 높리게 되었는데, 흥분한 행위자가 페트병을 잡아 피해자에게 던져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협박하여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위탁되었다.

행위자는 보통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사건 당일에는 술을 마신 상태여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바라는 바는 소득활동이라고 하면서 그를 준비중이라고 하였다. 행위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법적 제재를 수용하였다. 상담에 대한 need로는 갈등상황에서의 대처 방법과 대화법 등을 인식하게 되기를 원했는데, 성실하게 상담에 임하였다.

종결상담 시 행위자는 처음 상담에 임할 때는 상담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집단상담에서도 1~2회까지는 자신의 문제를 오픈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공감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고 자신에게는 아내, 아이들이 있고, 가정이 있다는 생각에 희망을 보게 되었고, 무언가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상담기간 중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지만 폭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상담을 통하여 가장 개선된 것은 대화법인데, 이전에는 자기 위주로 생각하던 것을 이제는 피해자 입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다고 변화를 꼽았다. 상담이전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3~4점으로 평가할 수 있고 종결 시 부부관계는 6~7점 정도로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피해자도 같은 의견이었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⑫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가정의 평화를 위한 예방사업 무료결혼식

1977년 10월 무료결혼식 시작 (1)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한 예방사업의 하나로 목요법률강좌 다음으로 시작한 것이 무료결혼식이었다.

상담소가 무료결혼식을 착안하게 된 것은 오랜 동안의 법률상담을 통해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는 부부의 결혼생활이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거쳐 맺어진 경우보다 파탄율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남녀 중 상당수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결혼식을 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없고 특히 여성의 경우 임신 후 유산 내지 임신중절을 통해 동거인과 헤어진 후 일반적인 결혼 내지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동안 상담소가 접수 처리한 많은 이혼사건과 사실혼 해소사건 중 1977년도 통계 하나만 보더라도 (1976.8~1977.7) 결혼식을 올린 부부로서 이혼문제가 제기된 시기

는 혼인 후 3~4년이 14.7%, 1~2년이 13.3%, 5~6년이 12.5%였는데 비해 사실혼 해소의 경우 1~12개월이 59.9%로 압도적이었고, 1~2년이 23.8%나 될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부관계의 파탄은 10쌍 중 7쌍으로 더욱 쉽고 빠르게 닥쳐옴을 보여주고 있었다.

혼인신고는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겠다는 서약이며 결혼 예식은 이러한 서약의 대사회적 공표이다. 이 같은 서약과 선언을 하지 않고 사는 부부의 경우 서로의 관계에서는 물론 사회적, 법적으로도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심리, 되는대로 살아간다는 심리를 유발시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감이 얇아져 결혼 생활 중에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게 되고 ‘헤어지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으로 상담을 통해 드러났다.

게다가 파탄이 생길 경우 그 상처는 여성 쪽이 거의 일방적으로 입게 된다. 당시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 관념 상

* 상담소는 지난 2016년 창립 6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정식부부의 경우도 이혼하면 남성보다는 여성 쪽의 불이익이 크다고 봐야 했는데, 사실혼의 경우는 법적으로도 아내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도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다.

상담소는 당시 이미 상담을 통한 법률구조사업의 하나로 혼인신고를 대행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혼인신고 절차를 문의하러 오는 사람들은 혼인신고와 결혼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라기보다는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다.

상담소가 이러한 이들에게 결혼식을 치러 줄 방안을 강구해 오던 중 1977년 10월 5일 <오늘의 한국가정을 진단 한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여성백인회관 개관 기념강연에서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효재 교수가 '사회적 측면에서 본 오늘의 가정'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문제를 설명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 남녀가 한 작업장에서 어울려 일하다가 동거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은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아무런 비전도 없이 단지 경제적 문제로 동거를 하고 정식 결혼을 생각지도 않은 중에 여성이 임신, 출산하는 경우

가 비밀비재하다, 이들이 헤어지고 나면 결국 직장에서 내쫓기는 것은 여성이고 이들의 경우 생활터전마저 잃어버리게 되어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 가운데에는 결혼할 생각이 있는 남녀도 있지만 결혼식 비용만 해도 최소한 5만원(당시)이상이 들고 가정을 꾸미려면 또 상당한 비용이 들어 그들의 월급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의 강연은 상담소가 평소 고민하던 문제가 무료 결혼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강연이 끝나자 이 소장은 참석자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상담소의 상담통계에서 나타난 바를 설명하고 이제 상담소에 이들에게 결혼식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강당도 생겼으니 무료결혼식을 당장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의, 참석자 전원이 박수로 찬성하였다.

이를 계기로 상담소는 무료결혼식 사업계획에 착수하였다.

편집부



인.터.넷.상.담



저희 형제들 중 첫째형은 경제적인 문제로 친가 가족들과 불화를 겪다가 저희와의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첫째형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탕했던 첫째형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형에게는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형제들은 첫째형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인연을 끊은 첫째형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첫째형은 혼인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으나 이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형수와 조카들이 한정승인을 할지 상속포기를 할지 모르는 채 첫째형의 채권자로부터 소송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고 살고 싶지 않아,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인 형수와 조카들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후순위 상속인인 저희 형제들과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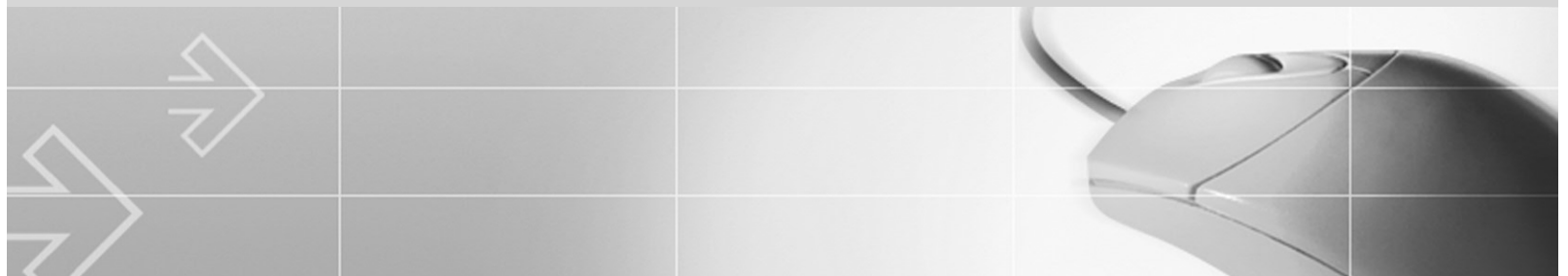


선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이라도 후
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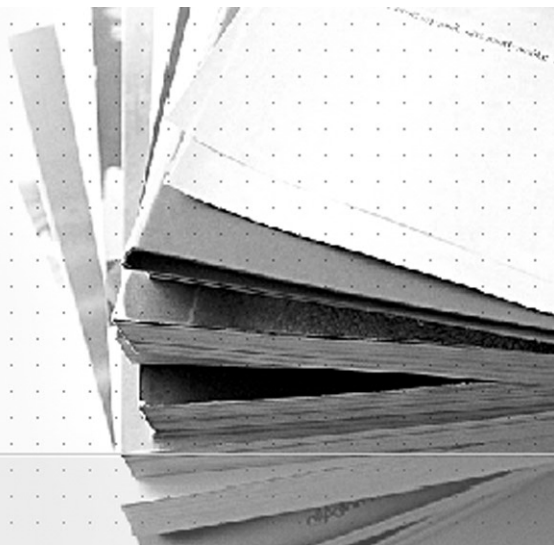
법원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이 도과되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고,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

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한 상속포기의 효력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비로소 발생하게 됩니다.

김민선 변호사



좋은 책



우익적 경향과 험한 발언으로 지금은 제쳐 놓았지만 ‘소나티네’나 ‘하나비’ 같은 영화를 만들고 출연하던 시절의 기타노 다케시는 좋아하는 배우이자 감독이었다. 그의 유명한 발언 ‘가족이란 누가 보지 않으면 내다 버리고 싶은 존재’라는 말에는 묘한 울림이 있다. 이 책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나 보라』를 읽으면서 오랜만에 기타노 다케시의 이 문제적 발언을 다시 생각했다.

글과 그림을 그린 세 사람은 어머니와 남매로 이루어진 한 가족이다. ‘나를 찾기 위해 글 쓰는 엄마, 글쓰는 청소부 아지매, 60세, 동사무소 자활근무’ ‘친구를 찾기 위해 글쓰는 딸 모모, 28세, 취준생’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글 쓰는 아들 꿈야신, 35세, 식생조사연구원’ 이 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아들인 꿈야신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놈의 집구석 내가 대신 들어오나 보라.’ 어린 시절, 아빠는 엄마와 싸울 때마다 이 말을 하면서 집을 나갔다. 어떻게든 자식들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엄마는 억척 아줌마가 되어갔고, 그런 팍팍함이 싫었던 아빠는 집 밖에서라도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부간의 불화가 심해지면서 나와 동생은 문제가 생겨도 각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 동생은 왕따를 당하며 생긴 마음의 상처를 숨긴 채 집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고, 나는 집구석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계발에 매진했다. 우리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 있었지만, 각자의 아픔을 가슴에 묻으며 살아갔다.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생활고까지 겹치자 가족은 마주 보고 이야기할 여유조차 사라졌다. 성

인이 된 나는 혼자서라도 집구석에서 벗어나려 했다. 자기계발, 연애를 통해 성공적인 행복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가난, 애정결핍, 열등감 같은 불안에 발목이 잡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여자친구는 가난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

이런 현실에서 애증과 연민으로 갈등하던 아들은 가족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엄마와 동생을 글쓰기로 이끌었고 숨겨 놓았던 감정을 풀어 놓게 되었다.

엄마의 글에는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겪어 온 고단한 삶이 잘 나타나 있다. 길거리 청소를 하면서 받았던 작은 도움을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에는 그녀의 심성이 보이고, 동사무소 공공근로에 대한 고마움을 읽다 보면 국가와 사회의 복지가 한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이면서 이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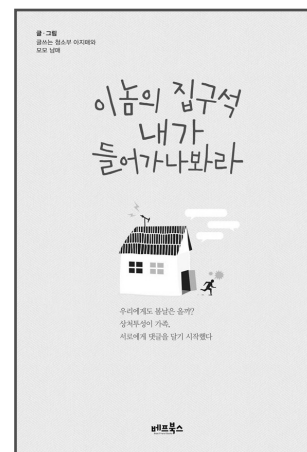
책의 뒤표지에 나온 “혼자 살기도 벅차니까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라는 말은 이들 가족이 이루어낸 소중한 성취가 있기에 가능한 역설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으려면 이 젊은이가 자신의 바람대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가능하도록 복지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책 읽는 내내 이 가족의 아들을 만난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 주고 싶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나 보라

글·그림
글쓰는 청소부 아지매와
모모 남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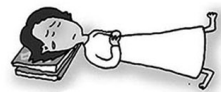
베프북스, 2018



결혼과 인생(193)

장차현실의 만화일기

86



글 | 그림 | 장차현실

나는 너의 흡혈귀야~~



그리고 나도 누군가의 흡혈귀였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임상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지난 1월 7일부터 4주간 임상실습을 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실무수습 소감을 나누어 보인다.

이 보 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족법에 관심이 있어서 진학한 법학전문 대학원이었지만 1학년생으로서, 그리고 3년 안에 정말 많은 것을 소화해야 하는 커리큘럼 속에서, 가족법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법을 공부하고 싶고, 그쪽에 커리어를 갖고 싶다고 말하면 왜 그런 “마이너”한 분야에 관심을 갖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사실 상처도 많이 받았습

니다. 하지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2주간의 실습과정은 가족법이 얼마나 생활에 밀접한 학문이자 법률이며, 이것을 알고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혼, 상속 뿐 아니라 후견, 입양 등 다양한 주제의 가족법적 문제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내담자 분들이 얻어가는 법적 정보나 조언은 그분들의 삶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법이라는 것이 자칫하면 미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인간사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다루는 법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들의, 가장 일상적인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상담참관실습을 통해 법이 굉장히 멀리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특히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적 요소들에 있어서 내담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이렇게 멀리 있는 법을, 도움이 필

요한 사람, 법이 생소한 사람의 가까이로 끌어오는, 일종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소에서 법적 절차,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며 내담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뿐 아니라, 법원에서 출장상담서비스까지 제공하며 당사 법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몰라서, 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 뻔한 분들까지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전화를 걸어 조언을 구하는 분들 역시 대부분 절박한 심정이었고, 법조문이나 간단한 판례, 절차를 알려드리면 그것만으로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법이 필요한 곳에, 법이 필요한 사람에게 법을 알려주고 그 순간을 헤쳐나가게 도와주는 것, 법을 일상으로 끌어오는 것,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하고 있는 이러한 역할들은 법조인으로서 제가 꿈꾸던 직업관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실무실습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알차습니다. 단순히 법적인 부분 뿐 아니라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역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소장을 작성하고, 상담참관보고서를 쓰며 법적쟁점을 정리하거나 인터넷 상담참관실습을 통해 가족법적 내용을 계속 접하는 것도 좋았지만, 강의를 듣거나 상담에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던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야간상담참관의 경우 법리적인 부분 보다는 심리 상담에 가까웠지만 가족의 분열과 상처 이후의 이야기-그것이 꼭 회복이나 극복이 아닐지라도-를 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것은, 실무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인진술서, 증인진술서나 증거 같이 살아있는 사건의 모습들을 접하고, 이것들이 소장, 답

변서 등 요건사실을 갖춘 법적 기록으로 정리되어, 결국에는 결정문 내지 판결문으로 완결되는 그 생생한 과정을 체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민사소송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않고, 가족법도 4년 전 배운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크고 작은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의 순간들을 다들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셨고, 같이 실습을 한 친구들과 서로 논의하고, 답을 찾아가며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서 수 경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잊지 못할 2019년

1학년을 마치고 아직 채워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제가 실무수습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2주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거치며 오랜 시간 걱정하던 일이 무색할 정도로 실무수습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상담소에서의 실무수습으로 2019년을 열었고, 올해의 이 경험은 앞으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는 물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제대로 듣기

상담참관을 하면서 저는 지난 날 저의 모습을 반성하는 한편 앞으로 법률가로서의 방향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누군가 제게 장점을 묻는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편이라고 답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법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했을 때에도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법률가가 되고자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무수습기간 동안 상담참관을 하면서 어쩌면 경청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지난 날의 제 자신은 어쩌면 이미 그를 타자화하여 가치판단을 전제로 내용만을 듣

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삶의 방식으로 하나의 삶을 완성해가고 있었기에 단순히 말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는 그의 심정, 태도, 의도 등에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해한다’는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 행동을 이해하여 법적인 쟁점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3. 법은 살아 있다

학교에서의 공부와 상담소에서의 실무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사례공부를 할 때엔 사실관계가 덧씌워진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훈련이 중요했다면, 상담소에서는 마치 낯선 외국에서 지도한 장만을 손에 쥐고 길을 찾아가는 여정처럼 개인의 역사 곳곳에 흩어진 법적 쟁점을 찾아 그에게 필요한 제도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는 어떤 주제가 중요한 법적 쟁점이다’와 같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주요 법적 쟁점이다’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 폭력이라도 처벌을 원하는 사람, 처벌은 원하지 않지만 격리를 원하는 사람, 처벌을 원하지만 처벌되지 않아 불안한 사람 등에게는 각기 필요한 법적 구조수단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법규정은 물론 판례는 결코 개인들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과 함께 숨 쉬며 축적되어 온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앞으로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 그 부분이 개인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지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4. 여성 법조인으로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기관이라는 점, 그 출발은 여성법률상담소였다는 점을 되새기며 실무수습을 통해 저는 제 나름의 작은 사명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 받던 여성 및 약자의 해방에 상담소가 앞장서서 달려왔고, 그 상담소를 지키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여성으로서, 여전히 양성 평등 실현 및 가정내 약자보호를 위해 묵묵히 가야 하는 길이 멀다는 점에서 저는 그 길을 걸어감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여성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 승 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2주간 진행된 실무수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담자 접수부터 면접 상담,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그리고 법원 출장 상담까지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제공하는 모든 상담 양식을 참관 또는 참여할 수 있었고, 법률 상담뿐 아니라 부부 관계 개선을 위한 특강, 가정 폭력 집단 상담 등 법 외적으로도 가정과 부부 생활을 위해 이루어지는 활동에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법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나아가 법의 어떤 부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지까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근무하시는 변호사님과 법무관님께 받은 소장 작성 과제 및 법률구조서류검토, 양형기준검토 등을 통하여 보다 실제적인 법조인의 업무를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책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구체화 하기 힘들었던 향후 법조인이 된 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궤배희 소장님과 박소현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라도 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시고 2주간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지내는 동안 어떠한 불편함도 없게 늘 신경 써 주셔서 알차고 즐거운 수습 기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원생 본연의 업무인 공부로 돌아가더라도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수습을 거친 후의 공부는 이전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한 미래를 그리며 하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은 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0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보낸 2주가 빠르게 흘렀습니다. 상담소의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실무수습 지원 시 목표한 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첫째, 가사사건 실무를 종합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1학년은 실무수습 시 주로 종료된 기록에 대해 소장 과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일이 과제로 주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상담소는 그 특성상 참관을 통해 많은 수의 의뢰인(내담자)을 직접 만나보고 진행되는 케이스를 따라갈 수 있었는데는 점에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참관 후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내담자의 이야기에서 법적 쟁점을 추출하고 사안을 포섭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는데, 평소 사례형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터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과제 제출 시 늘 빠르게 피드백을 주셔서 부족한 부분을 바로바로 채울 수 있었던 점도 감사한 부분입니다.

둘째, 문제해결의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법률상담과 병행하여 진행되는 가정폭력 상담 참관이 기억에 남습니다. 법을 공부하다보면 문제의 본질인 ‘분쟁의 해결’ 보다 ‘법적 해결’이라는 단면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참관을 통해 인간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심리상담 방식을 접하며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또, 상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사주재자 관련 사건을 검토하고,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법률가는 법을 해석하며 뒤따라가는 사람일뿐만 아니라, 법에 앞서 사회의 변화를 읽고 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무사히 실무수습을 마치게 되어 기쁩니다. 법학도로서, 나아가 변호사가 되어서도 상담소에서 만난 내담자들의 절실한 사연을 잊지 않고 노력하여 ‘좋은’ 법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해 봅니다.

상담소 소식과 상담통계



2019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

본소의 2019년도 정기 전기 이사회가 지난 2월 27일 열렸다.

김춘봉, 박양덕, 곽배희, 김명순, 임재연 이사와 최문원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이사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한 차명희 이사장을 대신하여 곽배희 이사의 사회로 개회, 전회 회의록 요약 보고, 감사보고, 안전토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전으로는 2018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개정 인사규정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이사회에 이어 정기총회가 오는 3월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관련사진 2면)

2019년도 상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직원재교육 견해

본소의 2019년도 상반기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김상용)가 지난 2월 21일 본소 8층 교육실에서 개최되었다.

직원재교육을 겸해 이루어진 이날 회의에는 곽배희 소장을 비롯해 본소 직원들과 본소의 가족법개정자문위원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전문센터장),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소혜 교수의 '배우자 거주권 보호방안', 차선자 교수의 '민법 제915조 자에 대한 보호 교양 목적의 징계권에 대한 검토', 김상용 교수의 '가족법과 혈연진실주의'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발표 후 발표자와 직원 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민음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본소 도서실에 자료 기증

2019년 2월 민음사에서 상담소 도서실에 중고도서 1800여권을 기증하였다. 기증된 자료는 민음사의 '기부 앤 테이크 캠페인'을 통해 수집된 도서들로 문학, 인문, 경제경영, 어린이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기부 대상 도서실로 상담소 도서실이 선정된 것이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도 '2018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도서 240여권을 기증하였다. 이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철학 등 여러 분야의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도서들을 전문도서실에 기부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상담소 도서실이 대상 도서실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상담소 도서실은 이번에 기증받은 다양한 양질의 자료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제공함으로써 향후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레상담 교육원, 본소 기관 방문

지난 2월 20일 이레상담 교육원의 가정폭력시설 종사자 양성 교육 교육생 및 직원들(38명)이 본소를 방문하여 상담소의 법률구조사 및 가족법개정사와 관련한 영상 시청과 상담소 사진 전시실을 관람하였다. 그리고 최수진 상담위원이 본소의 법률구조 사업 및 기관 연계 절차, 이혼 소송 관련 판례의 동향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강의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교육생들은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절차, 법률구조 사례, 소송 구조 절차 및 대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본소에서는 2월 28일 정신과전문의 김병후 원장(본소 이사)의 강의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25명이 참석하였다. 강의주제는 ‘지



속적인 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관계의 기술’ 이었고 이번 강의내용은 가족 발달 주기에 따라 달라지는 남녀의 역할, 갈등상황과 대처방안이었다. 강사는 부정적 감정 표출의 중요성과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부부의 놀이문화 등을 설명하였는데 참가자들은 강사가 실제 부부 간의 갈등의 예를 설명해주어 이해가 쉬웠다고 평가하였다. 다음 강의는 2019년 3월 28일(목)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출장 상담

2. 20. 구세군브릿지종합지원센터 부설
서울시 노숙인 일자리 지원센터-신용회복 상담
전규선 상담위원



본소 실습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석사과정 임상실습
- 1.7. - 2.15. 송인영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1.7. - 2.22. 권은후, 김상협, 김수진, 김예찬, 김장원,
박수아, 박정현, 변영선, 안은성, 이다슬,
이지은, 이혜인, 정유경, 정재준, 조시훈,
조예나, 조현호

●이대 현장실습 연수

1.2. - 2.28 김서정, 조은비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백국현 법무관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2월 18일 국민건강보험관리공

단 서울지역본부와 업무협업간담회를 가졌다. 공단에서 이
재근팀장과 오지현 과장이 참석하였고 본소에서는 조은경
상담위원이 배석하였다.



25일에는 복미영 상담위원과 함께 법무부 인권구조과 김
종현 과장 및 최현태 사무관을 면담하였다.

26일에는 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양육비이행사례 간
담회에 참석하였다.

2019년 2월 본부 상담통계

총상담 6,613				
법률상담 (6,13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지상
859	5,052	213	8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49		95	36	

*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 76,947건

2019년 2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
행한 총 상담건수는 6,613건이었다.
상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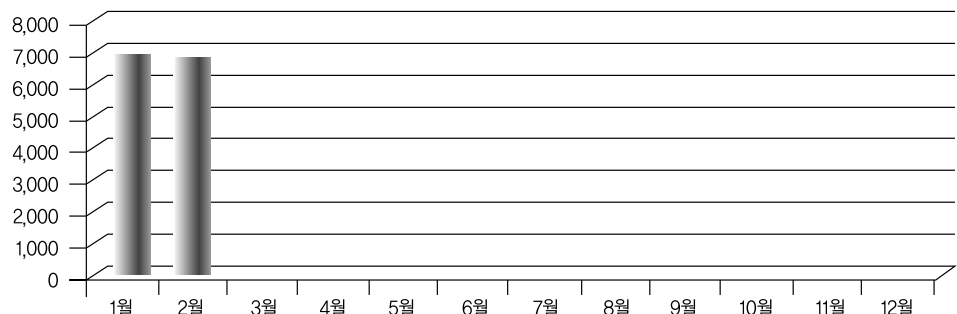
6,133건(92.7%), 화해조정 349건
(5.3%), 소장 등 서류작성 95건(1.4%),
소송구조 36건(0.5%)이었다.

법률상담 6,13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9년 1월에 비해 가사사
건의 경우에는 부부갈등(2.7%→
2.9%), 위자료·재산분할(10.9%→
12.3%), 친권·양육권(6.2%→7.2%),
양육비(6.7%→7.3%), 인지(1.2%→
1.3%), 혼인무효·취소(0.6%→0.7%),
성년후견(2.5%→2.7%), 가사기타
(6.0%→6.4%)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

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
대차(0.2%→0.3%), 부동산(0.2%→
0.3%), 민사절차(0.3%→0.4%), 민사
기타(0.6%→1.1%), 형사사건의 경우
에는 성폭행(0.0%→0.1%)에 관한 상
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6,13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859건(14.0%), 전
화상담 5,052건(82.4%), 인터넷상담
213건(3.5%), 순회 8건(0.1%), 지상 1
건(0.0%)이었다.

2019년
월별
총 건수



● ● ● 고 맵 습 니 다

2019년 2월 자원봉사자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운영, 강종협, 김태주, 박수열, 윤원섭, 이소정,
이효재, 주소희, 황미옥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연두, 김윤미, 김진아, 류현정, 이승주, 전성배,
천정환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배선정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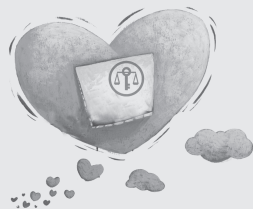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강경은, 김소희, 김준성, 김채린, 김혜원, 노규림,
문채현, 박범근, 박채니, 반민지, 배상준, 엄운서,
오정훈, 임희진, 이승철, 이원정, 이은현, 정윤정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이현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재무회계과

지부 소식과 상담통계

강릉지부

2월 1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이혼대상자 자녀양
육안내를 실시하였다. 14일, 19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에서 가사조정과 가사상담을 실시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2월 12일, 19일, 26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여지은, 정수경, 김효경, 황은하, 정이수 변호
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2월 2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부모양육안내교육
을 실시하였다. 14일, 28일 전주지방법검찰청 군사지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6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에서 이혼관련 30건의 출장상담을 실시하
였다.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지원사업으로 부
모교육(총 4회, 30쌍 부부)을 실시하였다. 박태영, 김진원,
정건진, 김주현, 정홍욱, 도낙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이혼부부의 미성
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4회, 광주시법원 2회(총 32명)
를 실시하였다.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으로 성남지원
에서 상담 4회, 내소 상담 3회를 실시하였다. 2월 28일 정
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김승구, 공영서 변호사가 소송구
조 봉사를, 김정혜, 문대근, 박지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
를 하였다.

송도지부

김유미, 최민석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수원지부

문나연, 차명심, 김춘희, 한승일, 장미애, 이윤선, 전태우, 송지영, 임용호, 이상훈, 구민혜, 양승철, 박진우, 강은혜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2월 12일, 19일, 26일(매주 화요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고,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협의이혼상담을 매일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2월 1일, 20일, 2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협의이혼상담을, 1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4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19일 LH 전주주거복지통합지원센터에서 출장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홍보를 실시하였다. 김성중, 박일지, 진취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1월 11일~3월 6일까지 상담소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 1회 내적치유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정수경, 홍지혜, 임유정, 박은정, 백존익, 이영주, 여지은, 김종운, 박수열, 심미숙, 박정두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2019년 1월 지부 상담통계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강 령 (033) 652-9555	213	201	10	2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21	75	146		
군 산 (063) 442-1560	117	63	52		2
대 구 (053) 745-4501	625	506	119		
대 전 (042) 520-5258	208	204		4	
동 해 (033) 535-0188	114	114			
목 포 (061) 273-2514	117	117			
부 천 (032) 667-2314	462	265	197		
성 남 (031) 707-6661	387	315	71		1
송 도 (032) 834-1369	259	102	139	8	10
수 원 (031) 243-4600	389	313	76		
순 천 (061) 753-9910	198	192	6		
안 동 (054) 856-4200	93	66	27		
울 산 (052) 246-9568	190	156	15	9	10

구 분 지 부	총 건수	법률상담	법률구조		
			화해 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익 산 (063) 851-5113	230	230			
인 천 (032) 865-1120	175	106	67	2	
전 주 (063) 244-2930	188	178	10		
정 읍 (063) 535-3705	107	103	4		
제 천 (043) 644-5690	27	27			
중 구 (02) 2238-6554	206	206			
진 주 (055) 746-7975	113	103	10		
창원·마산 (055) 261-0280	337	295	38	2	2
청 주 (043) 257-0088	167	143	19	5	
춘 천 (033) 257-4688	206	206			
태 백 (033) 554-4004	54	54			
평택·안성 (031) 611-4251	118	105	8	5	
포 향 (054) 283-7555	41	41			
지부총상담	5,562	4,486	1,014	37	25

창원·마산지부

2월 12일 창원지방법원에서 가사조정을, 19일 창원지방법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0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남상업, 오유경, 고정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춘천지부

2월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허남정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포항지부

2월 1일자로 장성숙 소장이 취임하였다.



안녕하십니까?

2019.2.1자로 부임한 포항지부 소장 장성숙입니다.

포항지부가 올해로 10년이 넘었습니다.

발족 당시부터 여성으로서 이사로서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했고 그간 도움이 될 일들을 고민해왔습니다.

앞으로는 포항지역민들을 위해 더 노력할 것이며

새롭게 재정비하여 좀 더 많은 지역민들이 쉽게 누릴 수 있는 상담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 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화·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28

담당 : 서혜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32세)은 2004년경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직장생활을 하였다. 이른 나이에 경제활동을 시작하였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하는 상황이라 저축을 할 수 없었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다. 이후 신청인은 부지런히 일하며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나가던 중, 아버지와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독립을 하였다. 신청인은 직장 근처 임대주택을 구해 월세를 내며 생활하였는데 생활비가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들었다. 이에 여유가 없어진 신청인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추가대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하였다. 그러다가 2017년경 지금은 연락이 끊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임신하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미혼모자시설에서 자녀와 함께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1~2년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독립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처럼 자녀출산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워진 신청인은 2,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해결할 길이 없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2.17.)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전남편에게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8-104

담당 : 이승진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50세)과 피신청인(남, 53세)은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11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폭행으로 인하여 2010년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신청인이 지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담조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지금까지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육비를 청구하는 신청인을 협박하였다. 신청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건본인의 양육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신청인은 우울증과 당뇨 조절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고, 사건본인 또한 주의력장애를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신청인은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미지급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8.10.02.)

1.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지원 2009호0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0. 3. 22.자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미지급양육비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로 분할하여 2018. 10월 말일까지 500만 원, 2018. 11월 및 12월 말일에 각

250만 원씩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건강악화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171

담당 : 김진아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51세)은 1996년경 혼인하여 평범한 회사에 다니면서 화목하게 살았다. 하지만 2003년경 협심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었고, 직장도 그만두어야 했다. 이후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택시기사를 하었는데, 무리한 탓에 건강이 악화되어 희귀난치성 질병인 섬유근육통까지 앓게 되었다. 결국 신청인은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금융권과 카드사에서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배우자가 보험설계사로 일하였지만 소득이 저조해 신청인의 채무를 상환할 수 없었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마저 천식 및 류마티스 강직성척추염을 앓게 되면서 일을 중단해야 했다. 현재 신청인은 여전히 섬유근육통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3인 가족은 저소득과 채무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채무 독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12.11.)

채무자를 면책한다.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강제집행하기 위한 재산명시 결정

법률구조 2018-440

담당 : 강종협 변호사

사건명 : 재산명시

내용 : 채권자(여, 50세)와 채무자(남, 51세)는 1997년 11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0세, 남 18세)을 두었으나, 2012년 11월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채권자가 지정되었고, 채무자는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채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채무자는 사건본인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하지 않았다. 채무자는 이혼 재판 중인 2012년경 사건본인들 명의의 통장으로 각 20만 원씩 3회에 걸쳐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인천지방법원 2018.11.20.)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 결정

법률구조 2017-467

담당 : 김하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내용 : 청구인(남, 51세)과 상대방(여, 47세)은 2001년 6월경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8세, 16세)을 두었으나, 상대방의 외도로 2008년 5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조정조항에는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더 좋은 양육환경을 마련한 후 청구인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정해진 바가 없었다. 이혼 직후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을 원하였고,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던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도록 하였다.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학원비를 학원으로 보내거나 상대방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총 500만 원 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는 등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청구인은 바로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와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가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여 왔다. 청구인은 농어촌종사자 정부지원 및 월 150만 원 정도의 소득으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욕을 하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하여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12.21.)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2,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2018.12.1.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없이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 이에 원고가 피아노 레슨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신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생각이 없다며 무책임하게 행동했다. 또한, 원고 모르게 원고의 친정에서 돈을 빌려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손해를 입혔다. 이후에도 피고가 제주도에 마련한 주택은 사기를 당해 경매로 넘어갔고 낯선 제주도에서 두 아이와 남겨진 원고는 결국 친정에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오히려 이것을 빌미로 별거를 요구했고 2016년 이후에는 연락마저 끊어버렸다. 현재까지 원고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부모가정으로 국가의 도움을 신청하고자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제주지방법원 2018.10.2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주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양육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4. 피고와 사건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면접교섭하고, 원고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적극 협조한다.
 - 가. 면접교섭 시기: 매월 3째 주 토요일 13시부터 19시까지, 그 이외에도 만나기 10시간 전에 서로 협의하여 만날 수 있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무책임한 행동과 경제적 갈등으로 아내를 괴롭힌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159

담당 : 백신옥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7세)와 피고(남, 50세)는 1996년 6월경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4세, 11세)을 두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고정적인 직업이



• 지면관계 상 소송구조 결과를 다 실지 못하거나, 게재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3월 11일, 3월 25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가족·부부상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치유하기 위한 공개강좌 프로그램

- ▶ 일시 : 2019년 1월~11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5시(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의제목
3월 28일(목)	3. 행복과 긍정적인 감정
4월 25일(목)	4. 상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
5월 23일(목)	5.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부갈등
6월 27일(목)	6. 관계를 교정하고 개인을 지키는 부정적 감정
7월 25일(목)	7. 분노의 남용
9월 26일(목)	8. 조정되지 못하는 핵심 상처
10월 24일(목)	9. 부부갈등에 관여하는 부모와의 관계
11월 28일(목)	10. 마음과 언어

감성학교-마음 깊은 곳에서 이해하기 : 무료공개강좌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2월 시작)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3월 14일	친밀감 : 또 다른 나를 만날 때 생기는 기쁨을 찾고 싶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4월 11일	불안 : 편안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 매일 만나는 내 속 경보기가 있다	
5월 9일	출가문 : 일상의 무거운 짐 아래 크게 숨쉬고 싶은 목소리가 들린다	
6월 13일	우울 : 우울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는가?	우애령 (사회복지학 박사, 작가)
7월 11일	평온 : 내 힘으로 평온한 감정을 유지하기	
10월 10일	희망감 : 단단히 마음먹고 산을 오르게 하는 힘	김희진 (영지대학교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11월 14일	고립감 : 혼자 또 같이 충분한 삶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연구소 전문연구원)
12월 12일	소속감 : 연결의 기쁨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쉽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9년 3월 29일 (금)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자녀동반 비혼모 가정
-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내 용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 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 삼성생명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지원합니다.

